

사노피그룹

■ '2012 미디어데이' 행사 개최



사노피 그룹이 4개 계열사 통합경영위원회 및 운영체제를 공식출범하고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혁신과 도약, 통합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사노피그룹은 지난 9월 5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클럽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는 4개사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12 사노피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각 계열사별 소개와 함께 통합된 사노피의 비전을 선보였다.

지난 1월 사노피 그룹으로 통합한 국내 4개 계열사는 동물약품 부문 메리알코리아(대표 김종영), 제약 부문의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장 마리 아르노), 백신 부문의 사노피 파스퇴르(대표 랑가 웰라라트나), 희귀 질병 치료제 등 바이오 부문 젠자임코리아(대표 배경은)다.

이날 행사에서 사노피 그룹의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장 마리 아르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사장은 영향(effect), 혁신(innovation), 시너지(synergy) 등을 통합출범에 대한 기대로 꼽았다.

먼저 영향(effect)은 제품다양화 등을 통해 환자

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질병 치료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혁신(innovation)은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통합경영위원회의 목표 아래 제품을 통한 혁신, 비즈니스 혁신 등 사노피 그룹의 발전을 위한 동력이다.

마지막으로 시너지(synergy)는 내부적 시너지, 운영효율성, 4개 계열사 간 다양한 정보 교류 등 사노피가 하나 돼 낼 수 있는 힘으로 표현했다.

한편 김종영 메리알코리아 대표는 메리알코리아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동물약품 전문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난해 20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150여개국에 진출한 상태다"며 "한국에는 지난 1998년에 진출, 34명의 임직원이 지난해 365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동물약품시장의 3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사노피와의 통합 후 계획에 대해 "내년부터 구제역 백신 기술을 국내 5개 회사에 전수해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4개 계열사 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과의 기술 교류 등을 통해 메리알코리아가 사노피 그룹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사노피 측은 사노피 본사 차원과 국내 사노피 그룹 및 각 계열사별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회공헌(CSR) 활동에 대해서 소개했다.

천하제일사료

■ 양계 심포지움 성황리에 개최

천하제일사료(총괄사장 윤하운)는 지난 9월 21일 중앙연구소에서 산란계 농가 120명을 대상으



로 기능성 계란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양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천하제일사료 창사 50주년을 기념하여 천하제일사료 양계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능성 계란의 개발동향과 미래를 예측해 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건국대학교의 강창원 교수는 완전식품인 계란의 영양에 대해 설명하며 기능성 계란의 개발 동향과 미래의 주제를 심도 있게 강연했다. 강교수는 “계란이 완전한 건강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계란의 진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식품의 3차적 기능인 생체조절에 중요시되는 영양소와 생리활성물질이 강화된 기능성 계란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양계협회 다케시타 마사유키 회장은 일본의 채란산업 현황과 계란판매의 주제로 일본 계란시장의 현황을 쉽게 풀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다케시타회장은 아사히 양계장을 1961년부터 운영하며 쌓은 경험으로 일본계란시장의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시장상황에 대해 비교하며 차별화 된 상품에 대한 관심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 행사를 개최한 천하제일사료 윤하운 총괄사장은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산란계 농가의 관심과 열정을 볼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산란계 시장 정보와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 서부사료(주)

■ '축산물 HACCP 운용 우수작업장' 선정



서부사료(주)(대표이사 정세진)가 '2012년 축산물HACCP운용 우수작업장 사료공장'에 선정됐다.

우수작업장 선정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서 주관하며 시상식 및 사례발표는 지난 9월 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심의위원회를 선임하여 두 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여 우수작업장을 선정했는데, 서부사료는 전국 100여개 사료공장 중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일등 무결점 공장' 임을 인정받게 되었다.

'도심속 친환경 공장 운영'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서부사료(주)는 HACCP 체계 및 당사 품질경영시스템을 상시 준수할 뿐만 아니라 위해환경개선(악취, 소음, 비산먼지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악취 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 업계 최초 플라즈마 탈취 시스템과 수평식 Wet Scrubber를 설치하는 등 지역 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서부사료(주)의 HACCP우수작업장 선정은 이러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되며 시상식 이후

생산부문 원재곤 전무가 사료 공장 대표로 우수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원재곤 생산본부장은 “서부사료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 무결점 사료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전 사원 ‘클린데이(Clean Day)’, 현장 책임자 ‘일 공장장 제도’ 등을 상시 운영하는 등 품질경영시스템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수작업장 선정을 계기로 서부사료의 위해요소관리 노하우를 대내외에 적극 알리고 품질향상에도 힘써 앞으로도 업계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트루라이프, 상반기 컨설팅 고객 농가 생산성 큰 향상으로 입소문

(주)트루라이프가 올해 상반기 동안 컨설팅을 진행한 양계 농가의 생산성과 농장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여름 장기간 지속된 폭염,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덴빈과 볼라벤 같은 이상기후와 난가 폭락 및 수급 불균형 등 대내외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여 농장 점검 및 계군 상태 체크 등 사전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1대 1 컨설팅을 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7~8월에는 적정 영양소 공급으로 계군 환경 유지, 산란률 및 난중 저하를 억제하는데 집중하면서 9~10월 환절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적합한 사양관리·영양관리·방역위생·질병관리 등 전 방위 활동을 통해 지방계를 예방하고 산란율 피크를 최대치로 이끄는 전략이 주효했다.

또한 담당FC가 농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세세한 부분까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개별 농장 실정에 맞는, 바로 실천 가능한 현장중심 대안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 농장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양계업 중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히는 계분처리·인력관리·질병·자금수급·법적문제 등 기타 애로사항까지 해결해 주며 농장주는 양계에만 전념하도록 돕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농가 경영을 개선하고 농장 체질을 바꿔 최대 수익성 창출을 보증하는 (주)트루라이프 농장경영 컨설팅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해당 지역 FC가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 모니터링 및 심층 상담을 해드린다.

- 농장 컨설팅 문의
- 전화 : (031)960-3088
- 인터넷 : www.etrulife.co.kr

대한제당(주)

■ 무지개사료 2,000만톤 달성기념 및 무지개 미래사업방향 행사 개최



대한제당(주)(대표이사 이추헌) 무지개사료가 2,000만톤을 달성함에 따라 지난 9월 5일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TS인재개발원에서 2,000만톤 달성기념 및 무지개사료 미래사업방향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무지개사료가 1979년 5월 14일 사료생산 및 판매를 개시한 이후 33년이 지난 6월 12일 누계판매 2,000만톤을 달성했고, 8월 20일 누계생산 2,000만톤을 달성함에 따라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무지개사료가 2,000만톤을 달성하는데 큰 공로를 세운 공로자에게 공로패를 증정하면서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하여 무지개사료의 33년 역사를 압축한 동영상 상영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고, 상승된 에너지를 무지개사료 미래사업방향을 제시하면서 하나로 결집하며 마무리되었다.

이추현 대표이사는 “무지개 사료의 33년 간 이론 2,000만톤의 역사는 1979년 인천사료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울산, 광주, 양주 등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전국을 잇는 물류 및 영업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밖으로는 유럽과의 다양한 기술제휴와 교류를 비롯하여 중국의 천진, 청도, 남경 등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창조와 도전의 기록”이라고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겠지만, 혁신적인 사고로 글로벌 시대의 축산업계를 리드하고, 지속적인 품질개선과 신제품 개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고객의 성공파트너로서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여 무지개의 명성과 신화를 드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 당부했다.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2,000만톤을 달성하면서 집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발판으로 미래사업방향을 제시하며 종합축산기업으로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무지개사료 사업본부장인 이강환 전무는 이날 미래사업방향을 “이제는 단순히 사료를 판매하는 것에서 벗어나 축산관련 비즈니스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강력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무지개사료의 새로운 비전은 종합축산기업으로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제당의 새로운 비전은 첫 번째로 종축사업부터 최종 유통단계까지 소비자와 생산자를 통합

적으로 결합한 형태의 복합형 인티그레이션 체인을 완성하고 우선적으로 유통부분과 농장운영 부분의 사업확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영업, 생산, 구매 등 회사의 모든 부분에서 혁신적인 업무 개선과 마케팅, R&D에서의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로 모든 부분에서의 지속적인 우월함을 유지함으로써 사료업계를 선도한다.

세 번째로 멘탈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무지개 사료의 임직원과 고객이 축산업 전 분야에 걸쳐 동반자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현재 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객과 성공신화를 창조함으로써 고객의 첫 번째 선택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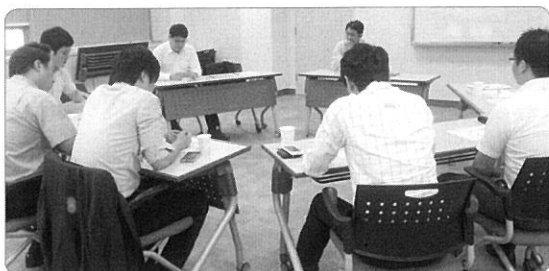
위 세 가지의 집중전략에 따라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는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강하고 경쟁력 있는 종합축산기업으로 발전할 것을 다짐했다.

무지개사료는 33년 간 불굴의 노력으로 이론 기술판매와 고객중심의 경영을 기반으로 한국 축산업계의 리더가 되고 글로벌 종합 축산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두산생물자원(주)

■ 대표이사와의 간담회 개최

두산생물자원(주)대표이사 윤영호는 지난 5월 25일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현재 직원들이 생각하는 비전, 리더십과 소통, 직원육성, 업무프로세스 개선 Needs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직접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고 고충 관련 요구를 가까이서 듣고자, 9월 초부터 영업부문을 시작으로 제조, 관리부문 직급별로 총 8차례 대표이사와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진행됐는데, 직원들은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중장기 전략과제 달성을 위한 방법과 업무개선에 대한 Needs와 조직문화 활성화 등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계기로 전사적으로 일관되게 drive 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함께 중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백두사료 가족과야구관람



두산생물자원 백두사료는 지난 9월 7일 잠실야구장에서 전국 축산농가 150여명을 모시고 두산베이스 vs 넥센 히어로즈의 야구를 관람했다.

포천, 김포, 광천, 안성, 당진 등 인근 축산농가 가족들과 함께 두산베이스 응원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객과의 친밀도와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두산생물자원의 야구관람 행사는 2년째 진행되고 있

으며 고객의 만족도 또한 높아 자랑거리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당일에는 경기장 선수들의 땀공을 잡는 행운도 찾아왔다.

(주)싱그린푸드시스템

■ 익산행복나눔마켓에 닭 500수 기탁



(주)싱그린푸드시스템(대표이사 김준형)은 지난 9월 26일 익산행복나눔마켓에 토종닭 500수를 기탁했다.

지난해 (유)익산한닭농업법인과 공동으로 토종닭 1천수를 기탁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닭은 마켓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식재료여서 명절을 맞은 어려운 세대들이 든든한 명절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형 대표이사는 “태풍피해와 경기침체 속에 맞는 추석이지만, 행복나눔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맛있는 토종닭으로 행복한 추석을 보내면 좋겠다”며 기부의 기쁨을 전했다.

(주)싱그린푸드시스템은 꾸준한 품질향상으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에 다양한 도계가공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로 꾸준한 지역사회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